

2017년 10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chunukhong@kiwoom.com

사상최고치 경신 이후 숨 고르기

은행주 실적 개선됐지만 세부 내용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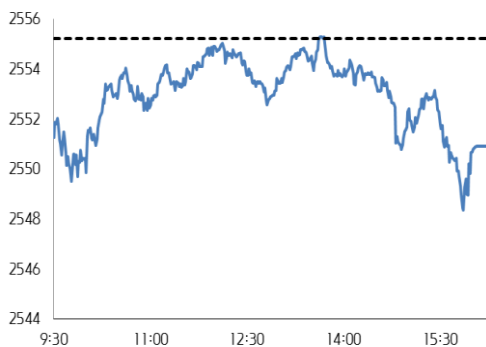
미국 경제지표 호조

전일 유럽증시는 보합 흐름 보였음. 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는 금융주 약세로 0.05% 내린 3,605.55 를 기록한 프랑스 CAC 40 지수는 0.03% 하락. 반면, 런던 FTSE 100 지수는 0.3% 상승하고, 독일 DAX 30 지수는 0.09% 상승.

미국 주식시장의 3 대 지수는 사상최고치 경신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0.14% 하락한 2 만 2,841.01pt 로 마감했으며 S&P 500 은 0.17% 하락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8% 하락한 6,591.51pt 를 기록.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일부 은행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효과는 반감됨. 미국 JP 모건체이스는 3 분기 순이익이 67 억 3000 만달러(주당 1.76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주당 1.65 달러를 상회함. 하지만 트레이딩 매출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JP 모건의 주가는 0.9%가량 하락함. 씨티그룹 역시 3 분기 주당순이익이 1.42 달러로, 시장의 예상(1.32 달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자율 트레이딩 매출은 16% 감소함. 물론 주식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이 같은 기간 16% 증가해 이자율 부문의 부진을 메웠지만 씨티그룹의 주가는 3.4% 내림.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생산자물가 역시 상승하며 12 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함.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3 만 명을 기록하며 전주(25.8 만 명)과 시장 예상(25.0 만 명)보다 모두 낮게 발표돼 허리케인에 따른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9 월 생산자물가도 허리케인 영향에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4% 상승, 전월(0.2%)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감. 생산자물가 결과로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짐. 9 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시장 전망은 전월비 0.6%로 전월(0.4%)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

S&P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474.76	+0.68	홍콩항셱	28,459.03	+0.24
KOSDAQ	666.54	+0.64	영국	7,556.24	+0.30
DOW	22,841.01	-0.14	독일	12,982.89	+0.09
NASDAQ	6,591.51	-0.18	프랑스	5,360.81	-0.03
S&P 500	2,550.93	-0.17	스페인	10,275.90	-0.02
상하이종합	3,386.10	-0.06	그리스	751.35	+0.37
일본	20,954.72	+0.35	이탈리아	22,398.51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통신주 3% 이상 하락

전일 미 증시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소매와 산업재, 부동산은 상승했지만 통신주와 금융주, 경기소비재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통신주는 3% 넘게 하락했다. 통신업체인 AT&T가 전일 올해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허리케인과 멕시코 지진 영향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 4분기까지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주가가 6.1% 하락했다. 금융주는 JP모건과 씨티그룹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트레이딩 매출실적 부진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74%	대형 가치주 ETF	-0.41%
에너지섹터 ETF	-1.73%	중형 가치주 ETF	+0.03%
소매업체 ETF	-1.31%	소형 가치주 ETF	-0.18%
금융섹터 ETF	-0.76%	배당주 ETF	+0.30%
기술섹터 ETF	-0.25%	변동성 ETF	-0.72%
소셜 미디어업체 ETF	+0.47%	대형 성장주 ETF	-0.03%
인터넷업체 ETF	+0.18%	중형 성장주 ETF	+0.20%
리츠업체 ETF	+0.70%	소형 성장주 ETF	-0.04%
주택건설업체 ETF	-0.20%	신흥국 고배당 ETF	-0.07%
바이오섹터 ETF	-0.5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0%
헬스케어 ETF	-0.11%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16%	물가연동채 ETF	+0.18%
반도체 ETF	-0.21%	Long/short ETF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4.87	-0.38	-0.60	+3.78
소재	363.87	+0.19	+0.06	+3.51
산업재	613.59	+0.51	+0.15	+4.08
경기소비재	722.70	-0.66	-0.90	+0.95
필수소비재	561.35	+0.40	+0.41	-1.09
헬스케어	955.91	-0.17	-0.45	-0.29
금융	433.67	-0.72	-0.78	+5.81
IT	1,041.64	+0.04	+1.08	+2.94
통신	154.20	-3.54	-5.91	+0.81
유틸리티	276.58	+0.50	+2.04	-0.37
부동산	203.32	+0.69	+1.36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Rally 이후 잠시 쉬어가기

MSCI 한국 지수는 +0.60% 상승, MSCI 신흥 지수는 -0.0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0.10pt 하락한 328.9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2.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2 원 하락 출발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부담감에 하락했다. 하지만 특별한 악재에 노출되었다기 보다 최고치에 따른 부담에 따른 숨고르기라고 판단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나 전일 미국 증시 하락과 지난 3 일에 걸친 Rally 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 있어 금일 국내증시도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9월 생산자물가 상승

미국 9월 생산자물가는 허리케인 영향에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4% 상승, 전월(0.2%)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년대비 기준으로 2.6%를 기록해 전월(2.4%)를 상회했다. 8 월말과 9 월초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여파로 휘발유 도매가격은 9 월 중 2015 년 5 월 이후 가장 높은 10.9%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3 만 명을 기록하며 전주(25.8 만 명)와 시장 예상(25.0 만 명)보다 모두 낮게 발표돼 허리케인에 따른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로존 8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전월(0.3%)과 시장 예상(0.6%)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유로존 생산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보여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IEA 보고서 영향에 하락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속에 1.4% 하락 마감. IEA 는 전반적으로 OPEC 의 감산안 이행 노력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수급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진단. 하지만 내년 OPEC 산 원유의 수요가 미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라 국제유가는 약세를 보임.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280 만 배럴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는 시장 예상과 달리 250 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다만 원유 재고가 전일 발표된 API 원유 재고(300 만 배럴 증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어 국제유가는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달러화는 지표 호조와 12 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강화에 소폭 상승함.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하락하며 허리케인 충격에서 벗어난 가운데 9 월 생산자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월대비 오름세를 이어간 점이 12 월 금리 인상 전망을 지지해줌. 유로화는 8 월 산업생산이 양호하게 발표되었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탓에 달러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금은 전일 발표된 9 월 FOMC 의사록 발표 영향을 받아 상승. 12 월 금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인플레이 진단으로 인해, 2018 년에도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된 점이 금 값 상승을 이끌.

구리는 달러의 약세 추세와 중국이 긴 연휴 이후 수요가 견조하다는 진단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감.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0.60	-1.36	-0.37	Dollar Index	93.102	+0.09	-0.91
브렌트유	56.25	-1.21	-1.32	EUR/USD	1.1831	-0.24	+1.02
금	1,296.50	+0.59	+1.83	USD/JPY	112.29	-0.19	-0.47
은	17.266	+0.78	+3.77	GBP/USD	1.3267	+0.33	+1.13
알루미늄	2,146.50	-0.02	-0.02	USD/CHF	0.9754	+0.20	-0.30
전기동	6,887.00	+2.18	+5.08	AUD/USD	0.7819	+0.40	+0.31
아연	3,250.00	+0.78	-1.40	USD/CAD	1.2476	+0.14	-0.71
옥수수	349.00	+0.87	-0.14	USD/BRL	3.173	-0.23	+1.22
밀	430.50	-0.63	-2.33	USD/CNH	6.5783	+0.07	-1.14
대두	992.00	+2.77	+2.45	USD/KRW	1133.2	-0.18	-0.66
커피	126.35	-0.35	-0.67	USD/KRW NDF1M	1132	-0.01	-0.9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21	-2.68	-2.67	스페인	1.629	+0.10	-6.40
한국	2.380	-3.90	-0.50	포르투갈	2.302	-2.00	-8.40
일본	0.067	+0.10	+2.10	그리스	5.530	+1.40	-1.30
독일	0.445	-1.80	-1.10	이탈리아	2.111	-4.50	-3.30